

김윤철 합천군수, “올해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”

경남=안옥원 기자 | 승인 2025.03.31 17:47

[종합소식] 영농기 대비 저수지·양수장 주요시설 점검...안정적인 영농환경조성에 '총력'
2025년 재외합천향우연합회 정기총회...이선건 신임회장 선출
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·화목사용 농가 산불예방 계도활동



김윤철 합천군수 죽전저수지 주요시설 점검.(사진=합천군)

경남 합천군이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·양수장 시설을 점검하고, 시범가동을 포함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.

특히 최근 김윤철 합천군수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와 함께 가야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죽전저수지를 방문, 취수탑과 방류수문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.

합천군에 따르면 죽전저수지는 가야지구 농업용수의 핵심 시설로, 총 수혜면적이 296ha에 달하며, 지난 2014년 독높이기 사업을 통해 저수량이 400만^m로 증축된 합천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수지다.

현재 지역 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338개소(합천군 관리 254개소, 농어촌공사 관리 85개소)로, 평균 저수율은 85.4%로 집계됐다.

이는 평년 저수율(80%)을 웃도는 수준으로, 영농에 필요한 용수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.

특히 군은 가뭄 우려 지역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으며, 대체 수원 확보와 강수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, 저수지 방류량을 최소화하는 등 가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.

아울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▶양수장 시설개선사업 5건(175억원) ▶노후 저수지 정비사업 3건(38억원) ▶지표수 용수 개발(50억원) ▶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0여건(30억원)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.

김윤철 군수는 “군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천군과 농어촌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올해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